



STL MARKET REPORT

Weekly Focus No.226

Updated November 27, 2018

The STL Market Report covers major issues affecting the world S&P market and provides an outlook for the market developments. The report provides a detailed analysis of key developments impacting S&P market trends.



Contents

Issue & Trend	1
Bulk Carrier	7
- BC Sales Report	
Tankers	12
- Tanker & Container Sales Report	
Demolition	16
Key Indicators	19
STL News & Information	21
Contact Information	24

** 본 자료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내, 외신 자료와 언론보도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법적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I . ISSUE & TREND

1. 임기택 IMO 사무총장 연임

임기택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의 임기가 오는 2023년까지 연장되면서 그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박 연관산업의 성공이 임 사무총장의 손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23일 해수부에 따르면 22일(현지 시각)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 121차 IMO 이사회에서 임 사무총장의 임기를 2023년까지 연장하는 안이 40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연임 동의 안건은 내년 12월 열릴 제 31차 총회에 제출돼 최종 승인받을 예정이다. 임 사무총장 1차 임기는 내년까지다. '세계 해양 대통령'이라 불리는 IMO 사무총장은 임기 4년에 1회 연임할 수 있다.

IMO는 해운·조선산업과 관련한 안전, 환경, 해상교통, 보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현재 174개 정회원국이 참여한다. IMO는 해운·조선 관련 국제규범을 만든다. 국가별 관련 산업과 기업의 경영환경에 큰 영향을 끼쳐 세계 각국은 해운·조선 관련 규범이나 의제를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IMO 진출에 힘쓴다. IMO 사무총장은 의제나 안건 상정 권한을 가진다.

2014년 국내 대학 연구에 따르면 1981~2013년 IMO 국제규범이 우리나라 연관산업에 미친 경제적 영향은 153조원쯤으로 추산된다. 2016년부터 IMO의 안전과 환경 규범에 대한 영향력은 더 커졌다. 임 사무총장 임기가 연장되면서 그의 역할론도 재조명된다. 그는 연임안 통과 후 런던 특파원단과 가진 인터뷰에서 "기후변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완성하는 게 첫째 목표"라고 밝혔다. 기후변화 관련 정책은 선박의 선형과 엔진, 기관, 연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IMO는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2020년부터 선박연료의 황산화물(SOx) 함유기준을 강화한다. 현재 국제 운항하는 전 세계 선박은 IMO 국제협약에 따라 황산화물 함유비율이 3.5% 이하인 선박유를 사용한다. 후년부터는 선박 대기오염 배출규제가 강화돼 함유기준이 0.5% 이하인 선박유를 사용해야 한다.

선사는 저유황유 사용, 배기가스 저감장치(스크러버) 설치, LNG 추진선으로 교체 중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정부는 LNG 추진선박 건조가 늘 것으로 전망한다.

당장 관심사는 포스코가 고망간강 신소재로 개발한 LNG 연료탱크의 국제 안전기준(IGF CODE) 등재 여부다. 안전기준은 IMO에서 논의해 결정한다.

I . ISSUE & TREND

문제는 규정 변경이 녹록치 않다는 점이다. 현행 IMO 규정에는 LNG 연료탱크 소재로 니켈합금강과 스테인리스강 등만 사용할 수 있다. 고망간강 소재는 가격에서 비싼 니켈, 스테인리스의 20~30% 수준으로 경쟁력을 갖췄다. 하지만 고망간강 사용은 니켈강 연료탱크를 개발한 일본 등 일부 철강국의 반대에 직면한 상태다. IMO는 다른 국제기구와 달리 사무국의 발언권이 크지 않다. 회원국의 입김이 세다는 얘기다.

정부는 임 사무총장의 막후 영향력에 기대를 걸고 있다. 임 사무총장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순 없으나 실무논의 단계를 거쳐 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될 때부터는 막후에서 반대파를 설득하거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데 힘을 보탤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LNG 추진선박을 침체한 해운·조선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 삼는다는 전략이다. 임 사무총장은 인터뷰에서 한국 조선·해운산업과 관련해 "(사무총장이) 특정 국가의 정책 방향을 유도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면서 "다만 한국은 조선·해운산업의 기본역량이 세계 최고 수준인 만큼 국제적 변화와 추이를 사전에 파악해 대비한다면 국제환경·안전에 맞으면서도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연임 소식이 전해지면서 해수부와 외교부는 공치사를 빼놓지 않아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해수부 등은 22일 낸 보도자료에서 해수부와 외교부, 주영국대사관이 40개 이사국의 연임 지지를 끌어내려고 노력해왔고, 그 결과 만장일치 동의를 끌어내게 됐다고 밝혔다. 각 이사국의 지지 성향을 분석하고 런던 현지 대사관 초청만찬 등을 통해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왔다고 소개했다. 통상 부처 보도자료에서 기관장 이름은 맨 처음 1번 표기하지만, 이 과정에서 김영춘 해수부 장관 이름은 2번 등장했다. 그나마 임 사무총장의 전문역량과 업무성과를 바탕으로 했다고 예의상 운은 뒀다.

보도자료에서 임 사무총장이 재임 기간 스마트·친환경 해운을 강조한 '2018~2023 IMO 전략계획'을 채택해 IMO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IMO 선박온실가스 감축 초기전략'을 채택해 지속 가능한 해운과 해양환경 보호에 힘썼다는 평가는 뒷전으로 밀렸다. IMO 사무총장 선거는 후보자 개인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후보자 국가의 영향력(외교력)과 지역 안배 등이 당락의 향배를 가르는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국가의 외교 노력이 당락을 좌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연임은 다른 문제다. IMO 사무총장은 이사국의 암묵적 동의를 얻어 연임하는 게 통상적이다. 역대 사무총장 현황을 봐도 유럽이 견제하며 독식했던 초기에는 3년 또는 4년 1회만 재임했지만, 5대 사무총장부터는 연임이 관례다.

I . ISSUE & TREND

인도 국적의 찬드리카 프라사드 스리바스타바 사무총장은 1974년부터 1989년까지 16년간 자리를 지켰다. 캐나다 출신 윌리엄 오닐 사무총장도 1990~2003년 14년간 재임했다. 이후 그리스 국적 미트로포올로스 사무총장도 8년간 자리를 지켰다. 2011년 선출된 일본인 세키미즈 코지 사무총장은 개인 사정으로 연임을 포기한 사례다.

2. 친환경선박 140 척 발주·7000억 금융지원... '조선업 회복'

뒷받침

정부가 2025년까지 관공선 40척과 민간선박 100척 등 총 140척의 LNG(액화천연가스) 연료선 발주를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1조원 규모의 친환경 선박 시장을 창출해 중소조선사들이 미래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총 7,000억원 규모의 신규 금융지원과 1조원 규모 만기연장을 통해 단기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연장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소조선·기자재업체의 경쟁력 확보에 방점이 찍혔다. 조선업계는 오랜 '수주 절벽'에 시름했지만 최근 시황이 회복되면서 대형조선사를 중심으로 수주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중소조선·기자재업체는 여전히 일감확보와 금융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금융, 고용 등 업계가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LNG 연료선, 탈황설비(스크러버) 등 친환경 선박 신시장 창출을 지원해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돕기로 했다.

먼저 2025년까지 총 140척의 LNG 연료선을 발주해 중소조선사 대상 1조원 규모의 신시장을 창출한다. 내년 선가 보조를 통해 미세먼지 배출이 큰 예인선 2척을 LNG 연료선으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연내 LNG 연료선의 적합선종 지정을 추진해 2020년부터 적합선종에 해당하는 관공선은 의무적으로 LNG 연료선으로 발주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40척 이상을 도입하는 게 목표다.

더 나아가 민간 노후선박 100척을 LNG 연료선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연안여객선 이차보전 사업 등 예산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원활한 LNG 연료공급이 가능하도록 병커링 인프라 확대에도 민·관이 함께 2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현재 가스공사가 건조 중인 LNG선 겸용 병커링선 1척 외에 순차적으로 4척의 선박과 설비를 추가 발주하기로 했다.

I . ISSUE & TREND

업체가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던 금융 애로를 풀어주는 데도 나선다. 중소기업의 경우 어렵게 수주에 성공하더라도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았다. 이에 7,000 억원 규모의 신규 금융지원, 1 조원 규모의 만기연장을 지원한다. 제작금융, RG 보증 등 총 4,000 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 3 개가 신설된다. 올해 말로 임박한 산업위기대응지역 내 조선기자재업체의 약 1 조원 규모 대출·보증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로 만기를 1 년 더 연장한다.

이번 금융지원 과정에선 정부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조선사 3사와 부산, 울산, 전북, 전남, 경남 등 지자체가 공동으로 자금을 출연한 게 특징이다. 산업생태계 유지를 위해 동반성장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는 설명이다.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내년 6 월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신규채용시 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필요한 인력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중소기업·기자재업계의 중장기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친환경·스마트 선박을 중심으로 '미래 먹거리' 확보 준비를 돕기로 했다. 수소경제 사회로의 발걸음에 맞춰 내년부터 수소 선박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수소연료 기반 선박 R&D 플랫폼 구축사업, 온실가스저감 미래선박 핵심기술 개발사업 등을 통해 2030 년 핵심 기술을 100% 국산화하는 게 목표다. 2035 년엔 배출가스가 나오지 않는 대형 제로 에미션(ZERO EMISSION) 선박을 건조할 계획이다. 자율운항선박 기자재·시스템 기술개발, 실증과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한편 정부와 지자체, 조선업계는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공동으로 상생협약식을 열어 이번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대한민국이 친환경선박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우리 조선산업이 현재의 보릿고개를 극복하고 지속 회복 중인 시황의 물결을 타고 빠르게 정상궤도로 복귀해 글로벌 1 위의 위상을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I . ISSUE & TREND

3. 선박용 후판가격 오르나...철강-조선업계, 12 월 협상 돌입

조선업계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내달 선박용 후판가격 인상협상이 핫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26 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철강업계와 조선업계는 12 월 후판가격 인상안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철강업계는 원자재가격 인상요인 때문에 현재 톤당 60 만원대 후반인 후판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조선업계는 업황 전망이 여전히 어렵다며 반대하고 있다.

최근 일본 동경제철이 다른 제품 공급가격은 동결하면서도 후판가격만 2,000 엔 올렸다는 점에 비춰 국내 업계도 톤당 2 만원 가량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협상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원재료가격이 많이 올라 내달 후판 납품가격 조정과정에 인상압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철강업계는 선불리 협상결과를 예단하기 힘들다며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상위사가 조선업계와 협상에서 어떤 결론을 낼 것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반면 조선업계는 일부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내년 시장전망을 낙관할 수 없다며 후판가격 인상에 곤혹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올해 2 차례 (후판가격) 인상이 있었고 이미 원료비 부담이 상당히 크다"며 "원료비 인상분이 선가에 반영돼야 하는데 선가가 오르지 않아 부담된다"고 말했다.

4. 국제유가, 1 년 만에 최저치...사우디 감산 의지에 주목

국제유가가 7 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국제유가는 1 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브렌트유는 60 달러 선이 붕괴되었다.

지난 23 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 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4.21 달러(7.7%) 급락해 50.42 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WTI 는 지난해 10 월 6 일 50.16 달러 이후 1 년여 만에 최저가를 기록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1 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배럴당 3.80 달러(6.1%) 내린 58.80 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브렌트유는 한 주간 약 12% 하락했다. 브렌트유는 지난해 11 월 3 일 배럴당 58.72 달러 이후 가장 낮은 가격에 거래를 마쳤다.

I . ISSUE & TREND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옹호하는 발언과 함께 저유가를 압박하면서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노력이 복잡해진 탓이다.

김훈길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의 사우디 지지 발언은 사우디가 미국의 유가안정 정책에 동조하는 것으로 인식돼 유가 급락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사우디 입장에서는 미국과 대립하기 쉽지 않기에 우호적 발언은 계속 나올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60 달러 이하 유가는 사우디가 지속해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에 결국은 감산 의지를 드러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다음 달 6일 OPEC 회의에서 사우디의 감산 의지가 구체화할 전망"이라며 "다음 주 유가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OPEC의 감산 기대감으로 소폭 반등해 55 달러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러시아가 감산 합의에 있어 사우디와 대립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만약 러시아가 감산에 부정적 입장을 지속한다면 유가가 한 단계 더 하락할 수 있고 감산에 동참한다면 50 달러 후반대 반등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윤지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유가 급락은 공급 증가와 수요 둔화 우려에 기인하나 선물시장의 투기적 매도 영향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파악한다"고 분석했다. 전 연구원은 "내년 세계 원유 수요의 점진적 둔화가 예상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저유가에 강한 의지를 보이며 사우디·러시아와의 협력에 힘을 쏟고 있어 유가 상승 여력은 기존 예상보다 낮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미국 에너지 업체에도 유가 급락은 부담이고 다음 달 주요 산유국의 감산 합의가 예상돼 추가 하락은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밝혔다.

임재균 KB 증권 연구원은 "중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재의 가격 하락은 과도하다"면서 "OPEC 정례회의에서 감산 기간이 연장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추가감산에 실패한다고 해도 주요 산유국이 생산량을 자발적으로 줄이며 유가를 부양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윤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도 국제유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여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저유가 추구는 단순 '표심잡기'가 아니라 경기 부양과 물가 및 금리 안정이 궁극적 목표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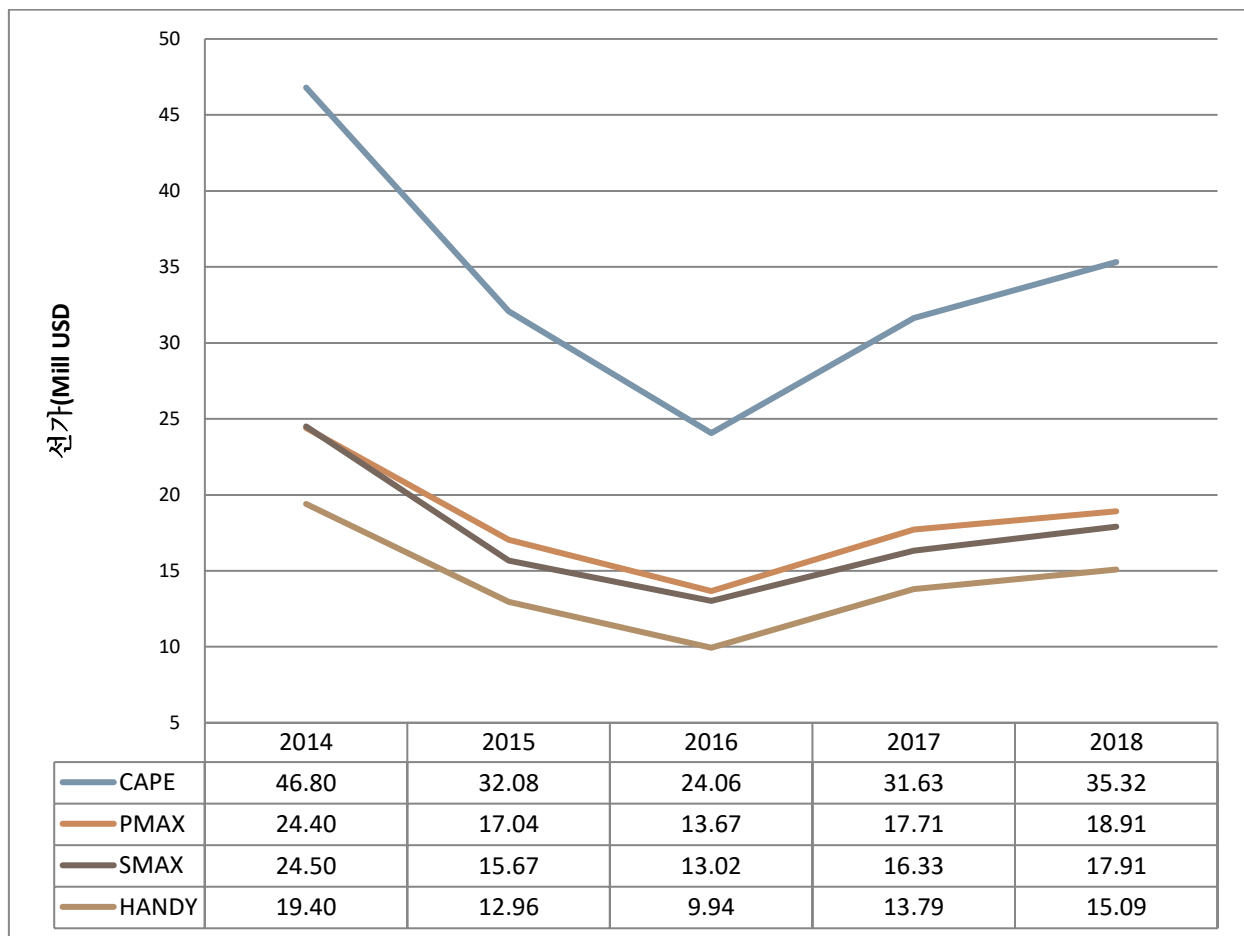
II . BULK CARRI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율 : 전년도 대비,%)

연평균 선가	2014	2015	2016	2017	2018
Capesize 180K	46.80	32.08	24.06	31.63	35.32
	28.81%	-31.45%	-24.99%	31.43%	11.68%
Panamax 76K	24.40	17.04	13.67	17.71	18.91
	13.27%	-30.16%	-19.80%	29.57%	6.78%
Supramax 56K	24.50	15.67	13.02	16.33	17.91
	14.84%	-36.04%	-16.91%	25.44%	9.65%
Handysize 32K	19.40	12.96	9.94	13.79	15.09
	9.04%	-33.20%	-23.32%	38.78%	9.42%

□ BC 연평균 선가 - 선령 5 년 기준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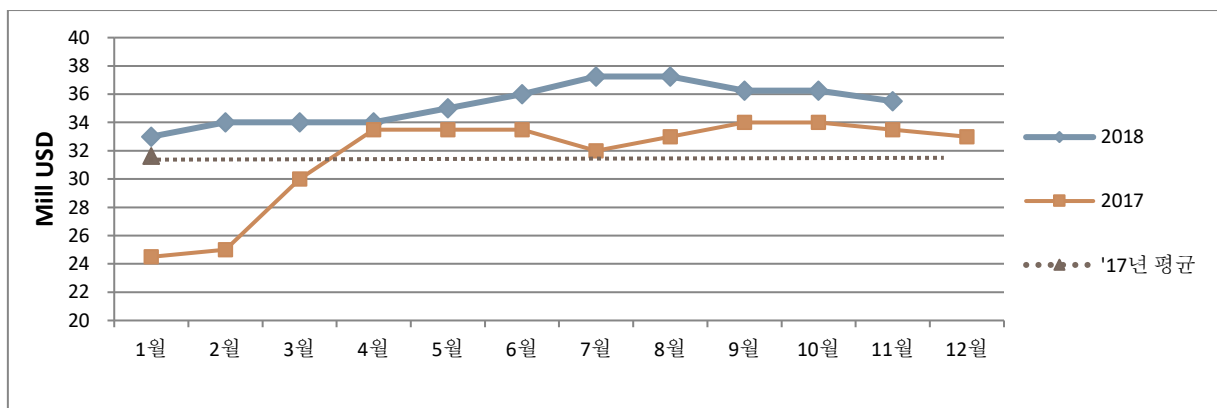




II . BULK CARRIER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2018	CAPE 180K	선가	33.00	34.00	34.00	34.00	35.00	36.00	37.25	37.25	36.25	36.25	35.50		35.32
		전월대비	0.0%	3.0%	0.0%	0.0%	2.9%	2.9%	3.5%	0.0%	-2.7%	0.0%	-2.1%		-
		전년대비	34.7%	36.0%	13.3%	1.5%	4.5%	7.5%	16.4%	12.9%	6.6%	6.6%	6.0%		11.7%
	PMAx 76k	선가	18.50	18.5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8.91
		전월대비	0.0%	0.0%	2.7%	0.0%	0.0%	0.0%	0.0%	0.0%	0.0%	0.0%	0.0%		-
		전년대비	27.6%	19.4%	8.6%	2.7%	2.7%	5.6%	5.6%	2.7%	2.7%	2.7%	5.6%		6.8%
	SMAx 56k	선가	17.50	17.5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7.91
		전월대비	0.0%	0.0%	2.9%	0.0%	0.0%	0.0%	0.0%	0.0%	0.0%	0.0%	0.0%		-
		전년대비	20.7%	16.7%	12.5%	5.9%	5.9%	9.1%	12.5%	10.8%	10.8%	5.9%	5.9%		9.6%
	HANDY 32k	선가	14.00	14.00	15.00	15.50	15.50	16.00	16.00	15.00	15.00	15.00	15.00		15.09
		전월대비	0.0%	0.0%	7.1%	3.3%	0.0%	3.2%	0.0%	-6.3%	0.0%	0.0%	0.0%		-
		전년대비	7.7%	3.7%	11.1%	10.7%	10.7%	14.3%	14.3%	7.1%	7.1%	7.1%	11.1%		9.4%
2017	CAPE	24.50	25.00	30.00	33.50	33.50	33.50	32.00	33.00	34.00	34.00	33.50	33.00		31.63
	PMAx	14.50	15.50	17.50	18.50	18.50	18.00	18.00	18.50	18.50	18.50	18.00	18.50		17.71
	SMAx	14.50	15.00	16.00	17.00	17.00	16.50	16.00	16.25	16.25	17.00	17.00	17.50		16.33
	HANDY	13.00	13.50	13.50	14.00	14.00	14.00	14.00	14.00	14.00	14.00	13.50	14.00		13.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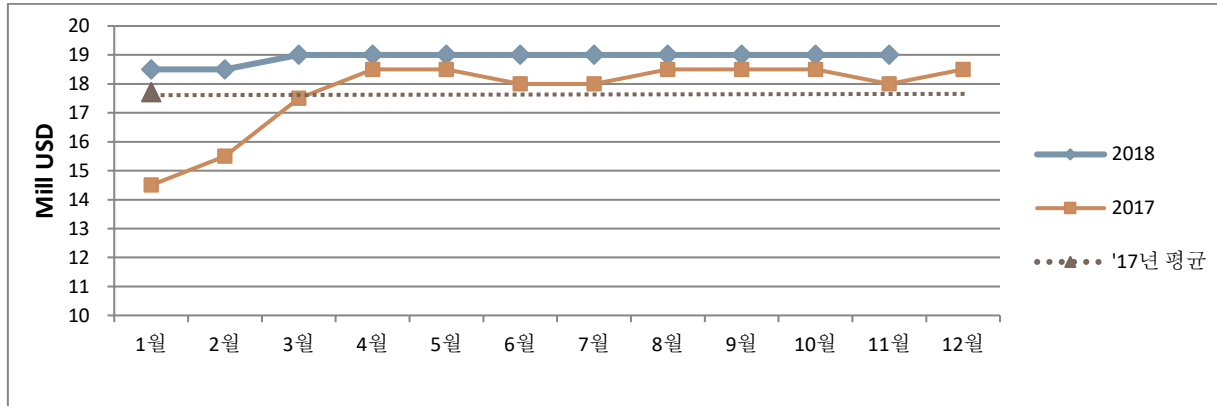
□ Ca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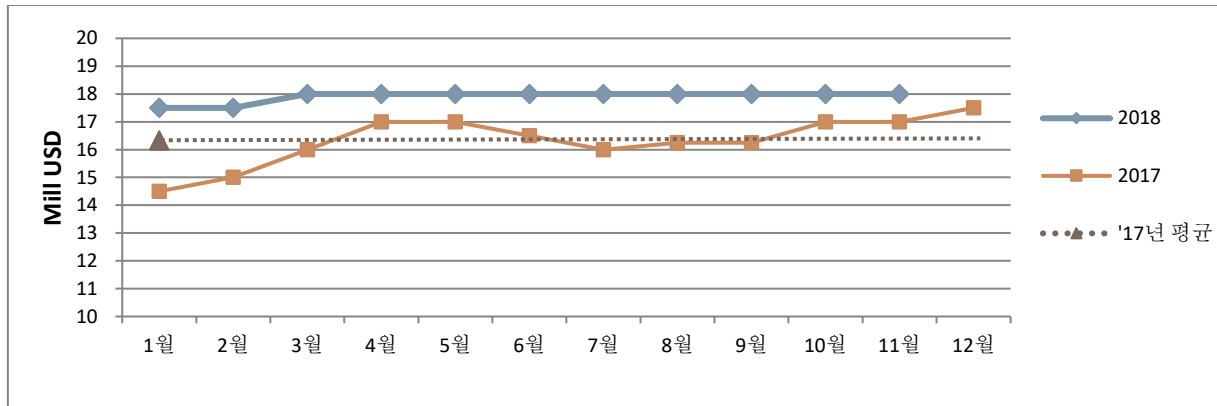


II . BULK CARR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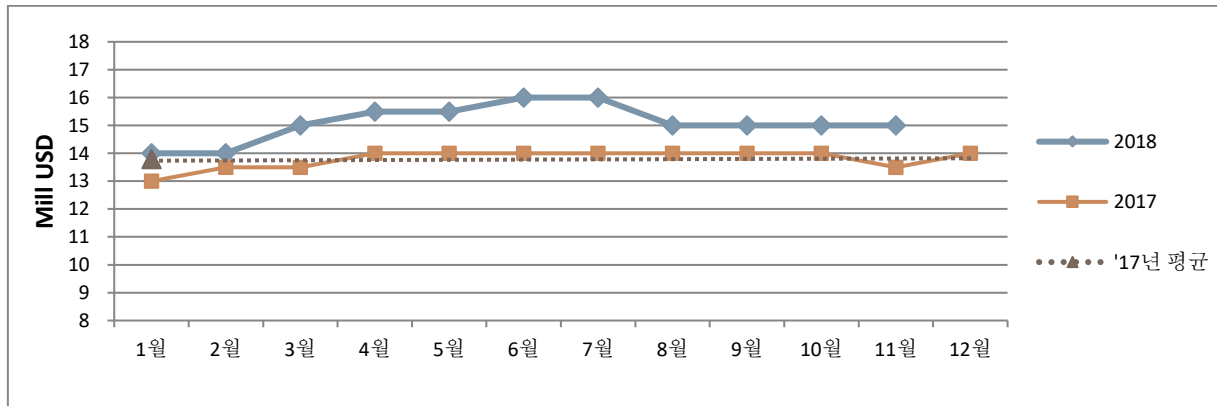
□ Panamax



□ Supramax



□ Handy





II . BULK CARRIER

III-1. Bulk Carrier Sales Report

TYPE	VESSEL	DWT	BLT	YARD	M/E	GEAR	PRICE	REMARKS
BC	SOUTHERN EXPLORER	177,493	2002	JAPAN	B&W		13.55	Greek buyer (Navitas Compania Naviera)
BC	TSUNEISHI ZHOUSHAN SS-200	81,600	2018	CHINA(JPN)	B&W		30	Singapore buyer
BC	OCEAN WIND	76,585	2006	JAPAN	B&W		10.7	Greek buyer
BC	SILVER PHOENIX	74,759	2006	CHINA	B&W		9.8	Undisclosed buyer
BC	NAVIOS MAGELLAN	74,333	2000	JAPAN	B&W		7	Chinese buyer
BC	GENCO BEAUTY	73,941	1999	JAPAN	SULZ		6.7	Chinese buyer, DD due
BC	ANJELIQUE D	58,689	2012	CHINA	B&W	C 4x30t	16	Greek buyer
BC	WIGAN	58,018	2010	CHINA	B&W	C 4x35t	11	German buyer (Asiatic Lloyd)
BC	WALSALL	58,018	2010	CHINA	B&W	C 4x35t	11	
BC	SSI INVINCIBLE	57,017	2010	CHINA	B&W	C 4x36t	12.3	Chinese buyer
BC	OCEAN VENDOR	56,815	2012	CHINA	B&W	C 4x30t	13	Chinese buyer
BC	OCEAN CARRIER	56,815	2012	CHINA	B&W	C 4x30t	13	
BC	STAR DELTA	52,434	2000	JAPAN	B&W	C 4x30t	6.1	Chinese buyer
BC	RED JACKET	52,224	2008	JAPAN	MITSU	C 4x30t	14.1	Undisclosed buyer
BC	FORTIS AMALTHEA	47,000	1999	JAPAN	B&W	C 4x25t	6.35	Undisclosed buyer
BC	AYIA MARINA	45,217	1996	JAPAN	MITSU	C 4x25t	4	Chinese buyer, SS/DD due Feb '19
BC	GLORY HONGKONG	40,000	2012	CHINA	B&W	C 4x30t	10.6	Greek buyer



II . BULK CARRIER

BC	XING NING HAI (log fitted)	34,443	2015	JAPAN	B&W	C 4x30t	18.5	
BC	XING JING HAI (log)	34,443	2015	JAPAN	B&W	C 4x30t	18.5	Greek buyer
BC	XING ZHI HAI (log)	34,443	2015	JAPAN	B&W	C 4x30t	18.5	
BC	XING YUAN HAI (log)	34,443	2015	JAPAN	B&W	C 4x30t	18.5	
BC	MISTRAL	29,859	2010	CHINA	WART	C 3x30t	8.5	Canadian buyer (Canfornav)
BC	BORA	29,859	2010	CHINA	WART	C 3x30t	8.5	
GC	KRYSSHOLM	4,125	2010	TURKEY	MAK	-	6.23	Norwegian buy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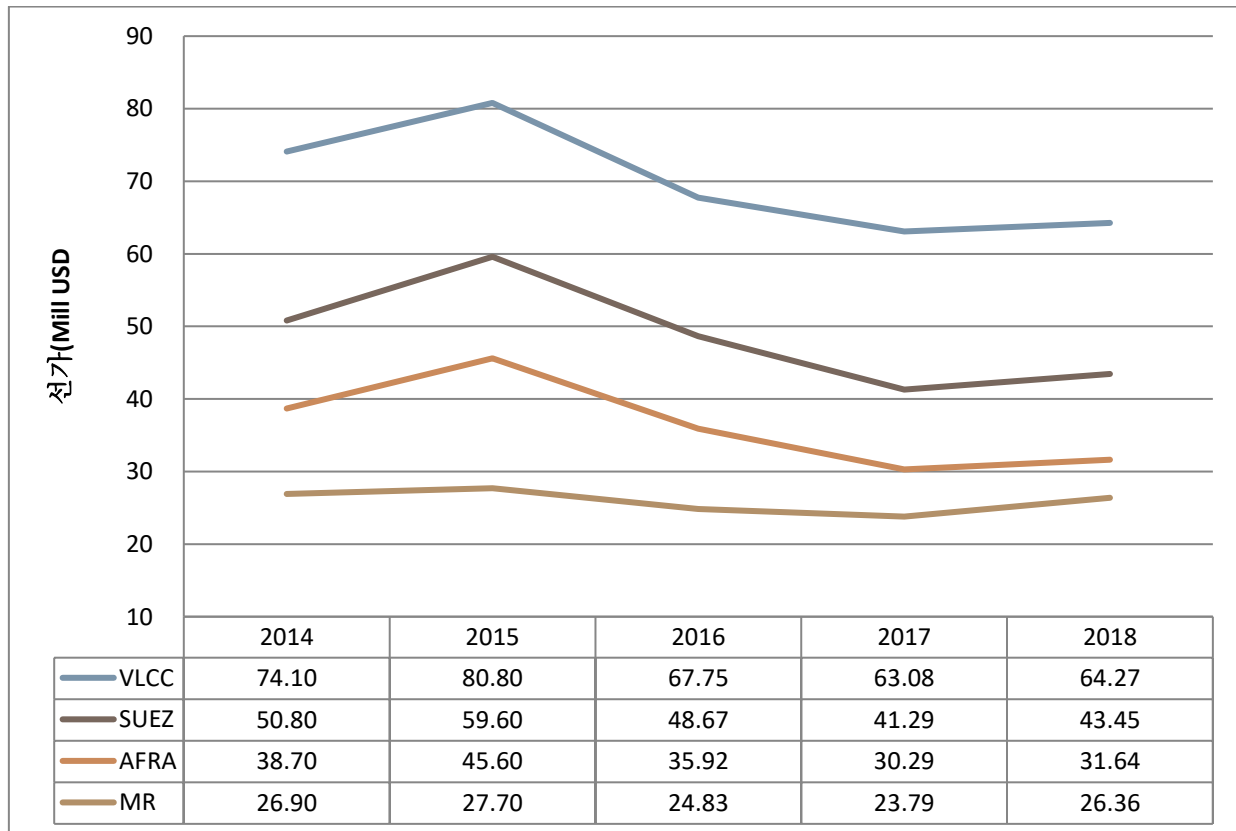
III. TANK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율 : 전년도 대비,%)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VLCC 310K	74.10	80.80	67.75	63.08	64.27
	31.93%	9.04%	-16.15%	-6.89%	1.89%
Suezmax 160K	50.80	59.60	48.67	41.29	43.45
	27.00%	17.32%	-18.34%	-15.15%	5.24%
Aframax 105K	38.70	45.60	35.92	30.29	31.64
	33.45%	17.83%	-21.24%	-15.66%	4.44%
MR 47K	26.90	27.70	24.83	23.79	26.36
	2.48%	2.97%	-10.35%	-4.19%	10.81%
Chemical Tanker IMO II 13K	13.00	12.60	13.92	12.42	11.86
	8.90%	-3.08%	10.45%	-10.78%	-4.45%

□ TANKER 연평균 선가 - 선령 5 년 기준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율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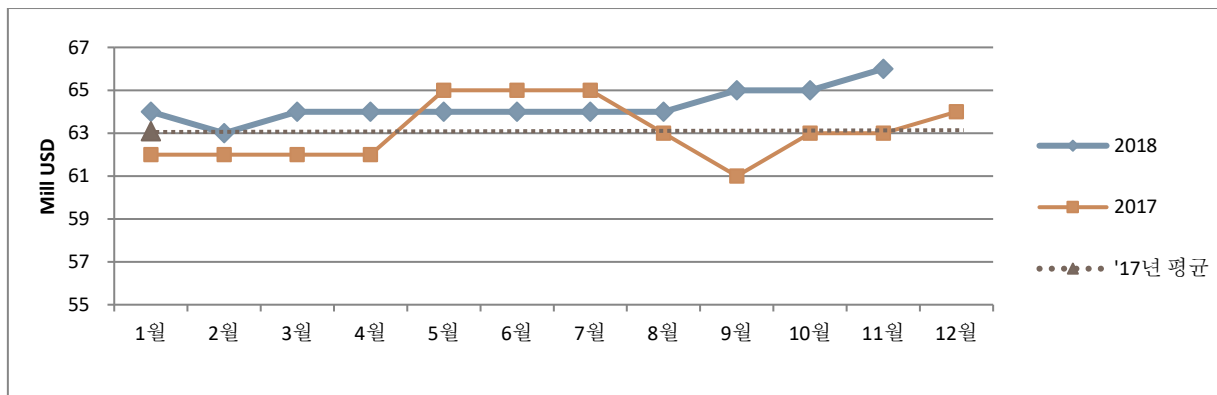




III. TAN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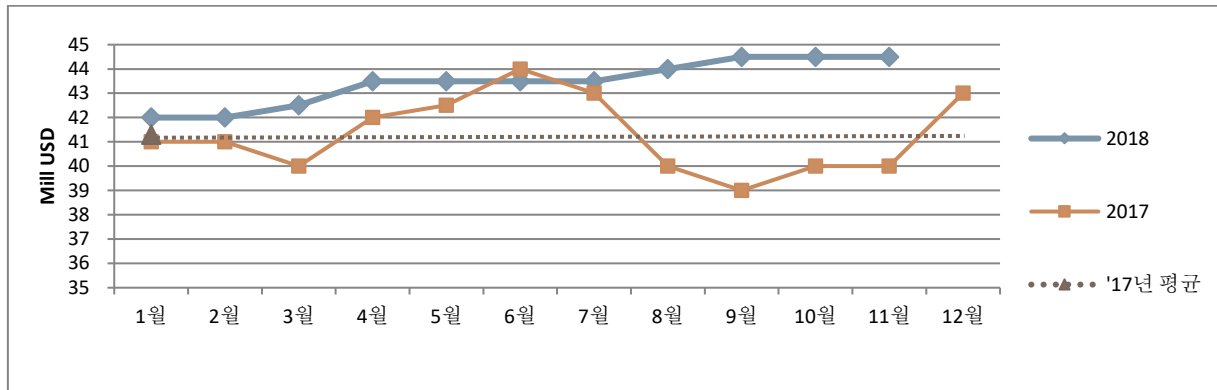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2018	VLCC 310K	선가	64.00	63.00	64.00	64.00	64.00	64.00	64.00	64.00	65.00	65.00	66.00		64.27
		전월대비	0.0%	-1.6%	1.6%	0.0%	0.0%	0.0%	0.0%	0.0%	1.6%	0.0%	1.5%		-
		전년대비	3.2%	1.6%	3.2%	3.2%	-1.5%	-1.5%	-1.5%	1.6%	6.6%	3.2%	4.8%		1.9%
	SUEZ 160K	선가	42.00	42.00	42.50	43.50	43.50	43.50	43.50	44.00	44.50	44.50	44.50		43.45
		전월대비	-2.3%	0.0%	1.2%	2.4%	0.0%	0.0%	0.0%	1.1%	1.1%	0.0%	0.0%		-
		전년대비	2.4%	2.4%	6.3%	3.6%	2.4%	-1.1%	1.2%	10.0%	14.1%	11.3%	11.3%		5.2%
	AFR A 105K	선가	32.00	30.00	31.00	32.00	32.00	32.00	32.00	32.00	32.00	31.00	32.00		31.64
		전월대비	0.0%	-6.3%	3.3%	3.2%	0.0%	0.0%	0.0%	0.0%	0.0%	-3.1%	3.2%		-
		전년대비	6.7%	0.0%	8.8%	6.7%	3.2%	3.2%	3.2%	6.7%	6.7%	3.3%	6.7%		4.4%
	MR 47K	선가	25.00	25.00	26.00	26.50	26.75	26.75	26.75	26.00	26.00	27.00	27.00		26.36
		전월대비	0.0%	0.0%	4.0%	1.9%	0.0%	0.0%	0.0%	-2.8%	0.0%	0.0%	0.0%		-
		전년대비	11.1%	11.1%	15.6%	10.4%	7.0%	7.0%	11.5%	10.6%	10.6%	12.5%	12.5%		10.8%
	CHEM IMO 2 13K	선가	13.00	12.50	12.50	12.25	11.75	11.50	11.50	11.50	11.50	11.25	11.25		11.86
		전월대비	0.0%	-3.8%	0.0%	-2.0%	-4.1%	-2.1%	0.0%	0.0%	0.0%	-2.2%	0.0%		-
		전년대비	6.1%	4.2%	-2.0%	-2.0%	-7.8%	-8.0%	-8.0%	-9.8%	-4.2%	-6.3%	-6.3%		-4.5%
	2017	VLCC	62.00	62.00	62.00	62.00	65.00	65.00	65.00	63.00	61.00	63.00	63.00	64.00	63.08
		SUEZ	41.00	41.00	40.00	42.00	42.50	44.00	43.00	40.00	39.00	40.00	40.00	43.00	41.29
		AFRA	30.00	30.00	28.50	30.00	31.00	31.00	31.00	30.00	30.00	30.00	30.00	32.00	30.29
MR		22.50	22.50	22.50	24.00	25.00	25.00	24.00	23.50	23.50	24.00	24.00	25.00	23.79	
CHEM		12.25	12.00	12.75	12.50	12.75	12.50	12.50	12.75	12.00	12.00	12.00	13.00	12.42	

VLCC-310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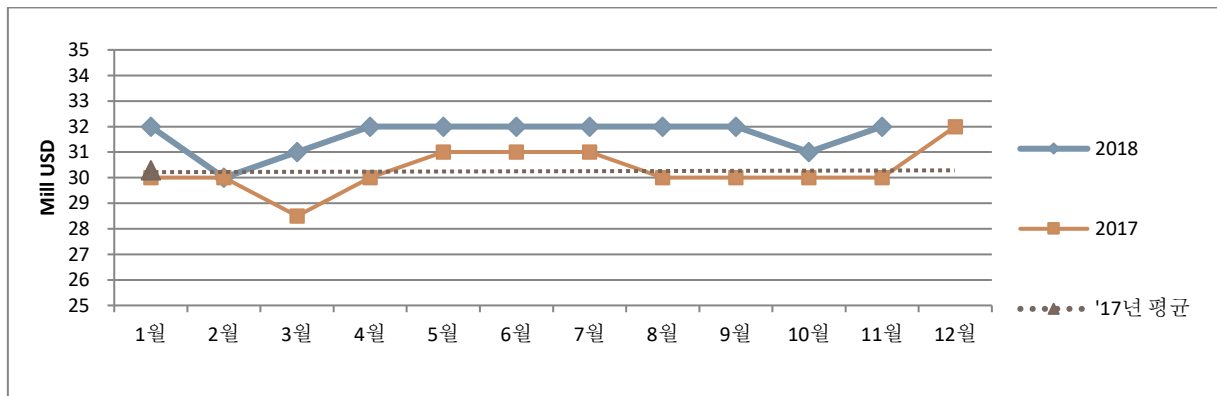


III. TAN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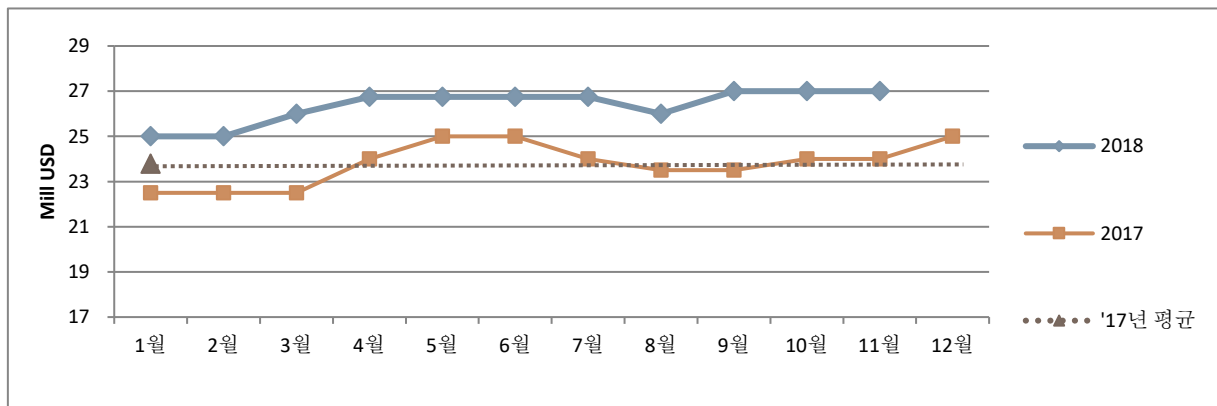
□ SUEZMAX-160K



□ AFRAMAX-105K



□ MR-47K



III. TANKER

IV-1. Tanker Sales Reported

1) TANKER

TYPE	VESSEL	DWT	BLT	YARD	M/E	IMO	PRICE	REMARKS
TANKER	TIANJIN	320,000	2015	CHINA	B&W		60	Greek buyer
TANKER	GC FUZHOU	319,725	2014	CHINA	B&W		54	
TANKER	FRONT FALCON	308,875	2002	KOREA	B&W		31	Undisclosed buyer, Conversion purpose
TANKER	SINGAPOR RIVER	115,126	2009	JAPAN	B&W		23.5	Greek buyer
TANKER	GENER8 COMPANION	72,700	2004	CHINA	B&W		7	Undisclosed buyer
OIL /CHEM	FPMC 17	46,872	2009	CHINA	B&W	3	10.5	Undisclosed buyer
OIL /CHEM	KRASLAVA	37,312	2007	KOREA	B&W	2&3	11	Undisclosed buyer
OIL /CHEM	KAZDANGA	37,312	2007	KOREA	B&W	2&3	11	

2) CONTAINER, REEFER, ETC

TYPE	VESSEL	DWT	BLT	YARD	M/E	CAPA	UNIT	PRICE	REMARKS
CONT	HEUNG-A LAEM CHABANG	21788	2016	KOREA	B&W	1785	TEU	20	Japanese buy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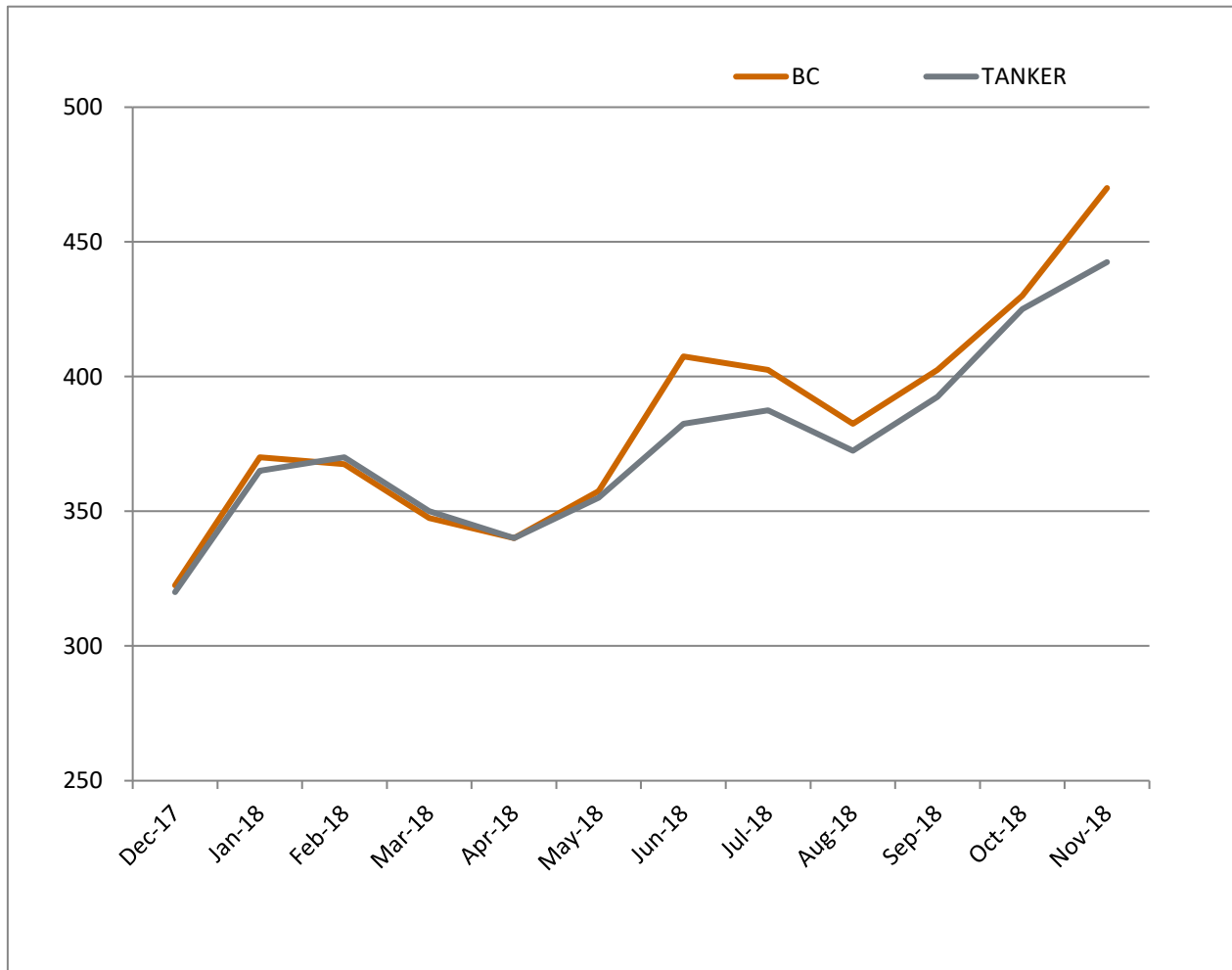


IV. DEMOLITION

1) 선가

해체선가 (US\$/LDT)	2016 평균		2017 평균		2018 평균		2017 년 11 월	2018 년 11 월		
		증감율 (전년대비)		증감율 (전년대비)		증감율 (전년대비)			증감율 (전년대비)	
TANKER	265.63	-22.1%	365.21	37.5%	433.18	18.6%	392.50	440.00	0.0%	12.1%
BC	267.71	-20.5%	370.83	38.5%	441.14	19.0%	402.50	442.50	1.1%	9.9%

◆기준 : 인도해체선시장(USD/LDT), 증감율 (전년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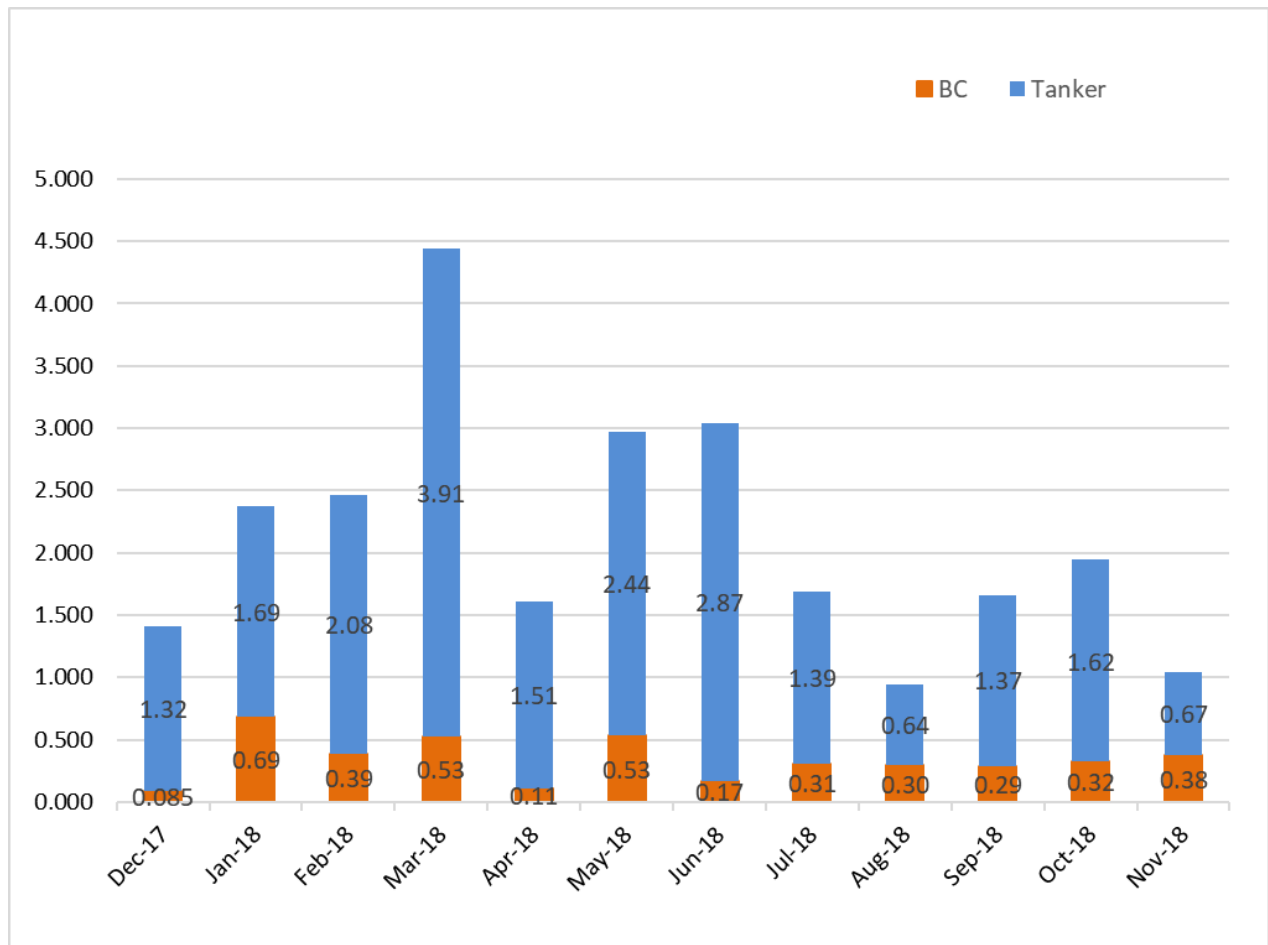


IV. DEMOLITION

2) 해체선누적현황

해체선 총량	2017 년		2018 년 누적				2017 년 11 월		2018 년 11 월			
	Million DWT	No.	Million DWT	누적율 (전년대비)	No.	누적율 (전년대비)	Million DWT	No.	Million DWT	증감율 (전년대비)	No.	증감율 (전년대비)
TANKER	11.47	113	20.19	176.0%	185	163.7%	1.25	13	0.67	-46.2%	11	-15.4%
BC	11.74	292	4.00	34.1%	103	35.3%	1.26	24	0.38	-70.2%	7	-70.8%

3) 해체선총량 (MILLION DWT)





IV. DEMOLITION

V -1. Demolition Sales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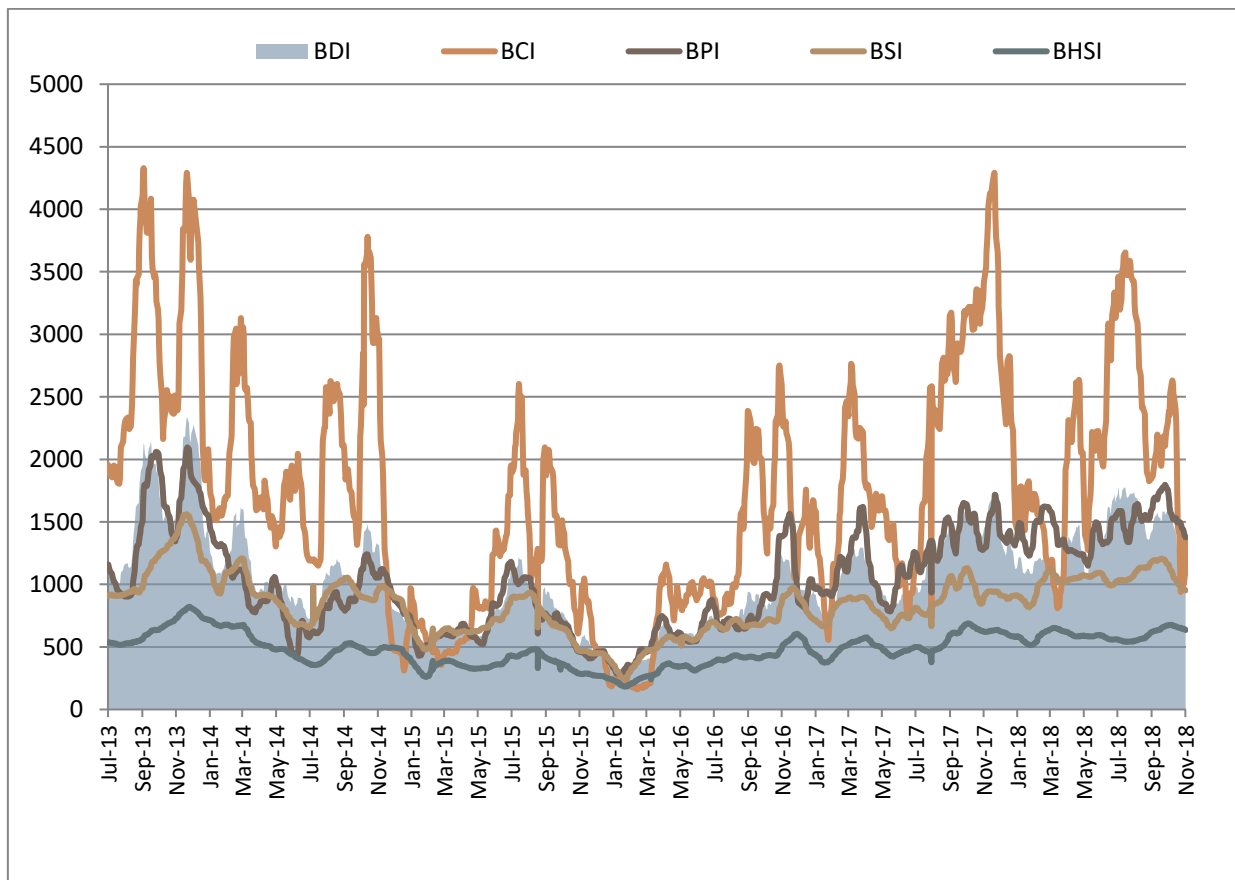
TYPE	VESSEL	DWT	LDT	BLT	YARD	M/E	PRICE (usd/ltd)	REMARKS
BC	LADY MELIS	25,739	6506	1992	ROMANIA	B&W	215	AS IS Abijan, recycling in Nigeria
CONT	ARCA	21,480	6896	1994	KOREA	B&W	474	BANGLADESH (Buyer's option India at \$480/ltd)
CONT	CNP ILO	14,700	5638	1995	GERMANY	SULZ	462	INDIA, Green recycling



V . KEY INDICATORS

1) Baltic Index

	2018-11-23	2018-11-16	CHANGE	5 Year High	5 Year Low
BDI	1093	1031	▲62.00	2337	290
BCI	1358	1057	▲301.00	4293	161
BPI	1376	1453	▼-77.00	2096	282
BSI	952	969	▼-17.00	1562	243
BHSI	635	646	▼-11.00	821	183





V . KEY INDICATORS

2) Bunker Price (USD/TON, 전주대비증감)

(USD/Ton, Change)	Singapore		Rotterdam		Houston	
IFO380	460.00	▼-16.50	389.00	▼-22.00	399.00	▼-9.00
IFO180	491.50	▼-14.00	432.50	▼-15.50	479.00	▲10.50
MGO	601.50	▼-44.00	587.50	▼-35.50	644.00	▼-19.00

❖기준일 : 11 월 23 일 기준

3) Exchange Rate

구분	2018-11-23	2018-11-16	CHANGE
미국 달러	1129.00	1130.30	▼-1.30
일본 엔(100)	999.34	995.25	▲4.09
유로	1287.34	1279.78	▲7.56
중국 위안	163.09	162.96	▲0.13

❖최초고시, 매매기준율기준

VI. STL NEWS & INFORMATION

[시사상식] 블랙 프라이데이

이번주는 미국의 추수감사절과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습니다.

해외직구가 늘어나면서 한국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한 한국기업들도 이와 비슷한 시기에 세일기간을 도입하기도 하면서 해외매출을 올리는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와 관련 용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Black Friday]

미국에서 추수감사절(11 월 마지막 주 목요일) 다음 날인 금요일로, 1 년 중 가장 큰 폭의 세일시즌이 시작되는 날. 미국 대다수 소매업체가 이 날을 기점으로 새해 초까지 대규모 할인 판매를 한다. 소매업체 1 년 매출의 70%가 이때 이뤄진다. 그 시발점이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블랙 프라이데이. 1 년 내내 적자(red ink)였던 유통업체의 회계장부가 붉은색(적자)에서 "흑자(black)"로 돌아선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2014 년 블랙 프라이데이 단 하루 동안 미국 유통업체들이 올린 매출은 91 억달러에 이른다.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사이버먼데이 [Cyber Monday]

추수감사절 연휴 이후의 첫 월요일. 연휴 후 일상으로 돌아온 소비자들이 컴퓨터 앞에서 온라인 쇼핑을 즐기기에 따라 온라인 매출액이 급등한 데서 유래했다. 연말 쇼핑시즌에 찾아오는 '블랙 프라이데이'의 온라인판이라 할 수 있다. 이 날 인터넷 쇼핑물들은 대대적인 세일에 들어간다. 엘렌 데이비스(Ellen Davis)가 만든 사이버 먼데이라는 용어는 2005 년 'Shop.org'라는 웹사이트에서 처음 선보였다. (매일경제, 매경닷컴)

박싱데이 [Boxing Day]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12 월 26 일을 가리키는 말로, 과거 영국과 영연방 국가에서는 이날을 휴일로 삼고 하인들에게 선물을 했다. 오늘날에는 파격적 할인가로 제품을 판매하는 크리스마스 전후의 쇼핑 시즌을 지칭한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소매상들이 특별 할인 판매를 단행하는 쇼핑 시즌을 박싱데이라고 한다. 캐나다에서는 박싱데이 기간 중 이른 새벽부터 특가품을 사려는 소비자들이 상점, 특히 대형가전제품 소매점 앞에 길게 줄을 서 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최근에는 크리스마스 전후부터 새해 전 날 까지를 할인행사 기간으로 하는 '박싱 위크'를 진행하기도 한다.

VI. STL NEWS & INFORMATION

박싱데이의 기원에 관한 설(說)

박싱데이의 기원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대부분 크리스마스에 가난하거나 신분이 낮은 이들에게 베푼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1. 중세시대 영국에서는 고용주가 크리스마스에도 일을 해야 했던 하인들에게 그다음 날인 26 일에 휴가를 주었다. 이때 고용주는 선물이나 보너스 혹은 남은 음식을 담은 상자를 하인들에게 마련해 주었다. 하인들은 가족과 함께 이를 나누며 휴가를 즐겼다.

2. 교회에서 크리스마스에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한 기부 상자를 만들어 헌금과 선물을 받은 뒤, 다음 날 성직자가 이 상자에 모인 기부 물품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상식으로 보는 세상의 법칙: 경제편)

관련기사 – 출처: 이뉴스투데이 2018.11.26

관세안 전자제품, 미국 패션의류 브랜드, 할인폭 큰 명품·가전 등 주요 트렌드 정리

온라인 캐시백 기업 이베이츠 코리아가 올해 블랙프라이데이 기간 동안 분석한 자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2018 블랙프라이데이 소비 트렌드'를 발표했다. 이베이츠는 ▲200 달러 이하 전자제품 ▲미국 패션의류 브랜드 ▲할인폭이 큰 가전 및 명품의 인기 등 세 가지를 올해 블랙프라이데이의 주요 트렌드로 정리했다.

블랙프라이데이 기간 동안 소비자들 가장 많이 클릭한 상위 5개 인기 브랜드로 이베이(eBay)가 1위를 달성했다. 폴로 랄프로렌, 다이슨, 욱스(YOOX), 아소스(ASOS)가 그 뒤를 이으며 전자제품과 패션의류 브랜드에 눈길이 쏠렸다.

특히, 올해는 200 달러 이하의 관세안 전자제품이 주목을 받았다. 다이슨 미국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V6 플러피, V7 헤파가 200 달러 이하 가격으로 판매되며 한국 소비자들의 인기를 얻었다. 브라바 380T 물걸레 로봇청소기 역시 베드베스앤비온드에서 높은 판매고를 기록했다.

나이키 에어맥스 97 과 폴로 키즈 케이블 니트는 올해도 많이 판매되며 블랙프라이데이 베스트셀러 브랜드임을 입증했다. 폴로 랄프로렌은 블랙프라이데이 기간 동안 인기쇼핑몰 2위를 기록했으며, 키즈 케이블 니트는 폴로 랄프로렌 홈페이지에서 24%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합리적인 쇼핑을 즐기는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나이키 에어맥스 97 역시 그레이, 메탈, 블랙 등 전 모델에서 클릭이 많았다.

VI. STL NEWS & INFORMATION

할인폭이 컸던 명품 의류와 가전제품도 이번 블랙프라이데이 기간 동안 뜨거운 인기를 누렸다. 캐나다구스 패딩의 경우 럭셔리 패션 쇼핑몰 '스타일밥'에서 30% 할인가로 한국 직배송이 지원되자 만나질 만에 품절됐다. 프라다 사피아노 카드 지갑은 매치스패션닷컴에서 40% 할인가에 판매되며 동 시간대 클릭 5위를 기록했다. LG 스마트 TV는 국내 1년 무상 A/S 혜택에 힘입어 이베이에서 55% 할인가에 구매가 가능해 소비자들의 많은 주목을 받았고, 보스 블루투스 이어폰도 높은 가격 경쟁력으로 많은 제품이 판매됐다.

임수진 이베이츠 코리아 이사는 "올해 블랙프라이데이는 관세안 전자제품, 할인 폭이 큰 명품·가전 등 최저가 경쟁 속 더 큰 혜택을 찾는 고객들의 행태가 돋보였다"며 "블랙프라이데이를 시작으로 사이버먼데이, 박싱데이 등 연말까지 해외직구의 열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베이츠는 세일 시즌에 맞는 가격 경쟁력 있는 상품을 더욱 편리하고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캐시백과 다양한 프로모션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VII. CONTACT INFORMATION

STL GLOBAL Co., Ltd.

101-1401, Lotte Castle President, 109, Mapo-daero, Mapo-gu, Seoul, Korea
 Tel: +82-2-776-0840 (Rep.) Fax: +82-2-776-0864
 E-mail: seoul@stlkorea.com
 www.stlkorea.com

| SALE & PURCHASE

Neal S.I. Kwon (권순일 상무)
 Senior Director
 Tel. 070-7771-6410
 Mob. 010-9496-0523
 snp@stlkorea.com
 neal@stlkorea.com (Personal)

Claire C.W. Ji (지차욱 차장)
 Deputy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11
 Mob. 010-6625-9785
 snp@stlkorea.com
 claire@stlkorea.com
 (Personal)

| CHARTERING

Sancho Kim (김현진 이사)
 Director
 Tel. 070-7771-6404
 Mob. 010-5756-9378
 snp@stlkorea.com
 sancho@stlkorea.com
 (Personal)

Leo J.M. Jung (정재문 부장)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09
 Mob.010-3273-4008
 snp@stlkorea.com
 leo@stlkorea.com (Personal)

| RESEARCH

Jiwon Song (송지원 사원)
 Tel. 070-7771-6417
 Mob. 010-4042-9803
 snp@stlkorea.com
 jiwon@stlkorea.com
 (Personal)

| AGENCY OPERATION

| FERROALLOY LOGISTICS

| WAREHOUSE MANAGEMENT

E-mail. operation@stlkorea.com

에스티엘 지투어 (www.stlgtour.com)

Tel. 1661-8388 (Rep.) Fax. 02-6499-8388
 E-mail. tour@stlgtour.com

전남요트아카데미 (www.stlyacht.com)

Tel. 061-247-0331 Fax. 061-247-0333
 E-mail. academy@stlyacht.com